

#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sup>1)</sup>

##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Financial Well-being of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in Household

제주전문대학 가정관리과  
전임강사 고 보 선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임 정 빈

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junior college

*Fulltime Lecturer* : Koh Bo-Sun

Dept. of Consumer and Family, Hanyang Univ.

*Prof.* : Im Jeong-Bi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
| III.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employed and unemployed wiv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well-being on the basis of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system theory. The data were obtained from 660 wives who lived in Seoul, 1996.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Regardless of the wives' employment status, marriage duration and level of wives' education negatively influenced o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lso, both the personal and managerial factors predicted objective financial well-being in the case of unemployed wives, but not in the case of employed wives. 2. Both unemployed and employed wives, locus of control over their financial situation positively influences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3. It was found that personal and managerial factors had

1) 본 논문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임.

effect on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both for unemployed and employed wives. The path model designed in this research was found to be proven for unemployed, but not for employed wives.

## I. 서 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계는 재정상태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계관리자는 가정의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현재의 재정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자 한다. 따라서 가계의 재정복지는 효율적인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자원의 양적인 증대와 가족원의 욕구충족 및 목표달성으로 인한 만족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가정의 내적, 외적 환경요인의 급격한 변화는 가계관리자로 하여금 가족원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욕구충족과 가정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가계관리능력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0%, 1990년 46.8%, 1993년 46.4%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여성통계연보, 1994). 기혼여성의 취업은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여성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고용수준의 확대와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3년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분포를 보면, 생산직 20.3%, 서비스직 18.8%, 판매직 18.7% 등으로(여성통계연보, 1994) 취업주부의 직업지위는 낮고 불안정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취업주부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의 역할구조 및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부간의 응집성 및 적응력 정도와 가계관리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가계의 재정복지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와 비교하여 시간과 에너지 자원의 제약속에

서 가정의 역할과 직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역할부담을 지니고 있어,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통제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계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가계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가계관리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관리자는 가계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가족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제한된 자원과 가족원의 요구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만한 의사소통을 기초로한 가족원간의 적응력과 응집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가계재정복지에 관한 연구는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객관적 척도와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등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측정하는 주관적 척도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Mammen, Helmick, & Metzgen, 1986; Williams, 1986; 정영숙, 1994; 고보선·이영호, 1995). 가계의 재정복지수준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모두 병행하면, 현재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파악과 만족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예측하여 궁극적으로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자원관리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부부 응집성과 적응력의 인적 요소,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의 관리적 요소로 구성된 변환과정과 가계 재정복지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이를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에 적용시켜 가계관리행동과 가계재정복지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을 통한 가계재정복지향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1. 가정자원관리체계이론

가정자원관리체계 모델은 투입, 변환과정, 산출 및 피이드백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변환과정은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산출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Deacon & Firebaugh, 1988).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며 체계내의 역동적 요소인 응집성, 적응력, 기능성을 발달시켜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자원관리체계모델을 일반관리와 재무관리의 연구에 적용시켰을 때 타당성이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최근 일반관리연구에서는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두경자, 1990; 최동숙, 1992; 조혜정, 1995), 재무관리에 적용을 시킨 연구는 재무관리태도와 행동(Godwin & Carroll, 1986), 재무관리행동과 가정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Titus, 1988; Mugenda, Hira, Fanslow, 1990; 김순미, 1993), 생활의 질 만족, 주관적 가계재정복지(Schnittgrund & Baker, 1983; Swift & Hira, 1987; Sumarwan & Hira, 1992; 이기영·조영희, 1992)등으로 주관적인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 투입요소

#### 1) 자원

가정자원관리체계이론에서의 자원은 동기, 요구등과 함께 투입요소로서 작용하여 변환과정인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가 원만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원은 가족체계 내부에서의 생산적인 활동이나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용가능하게 되며, 이용가능한 자원이란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Williams 와 Manning(1972), Hira(1987)는 취업주부의 경우 가계에 대한 기여가 크며 그에 따른 가계

관리자로서의 재정적 의사결정권의 증가로 가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으며, Sumarwan 과 Hira (1993)의 연구결과에서 취업주부의 경우는 전업주부보다 내적통제의 성향이 높았으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인적자본투자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가계관리능력과 재정복지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Danielewicz, 1978; 한경애, 1980; 이정우, 1982; 김민정, 1984; 임정, 1988; 박혜경, 1992).

#### 2) 통제성향

인간의 통제감은 이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Williams, 1985), 결국 복지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관리에서 가계관리자의 재정적 통제의 성향이 중요한 것은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한 가계관리자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주어진 환경을 자신이나 가계에 유리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니는 사람은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아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행동을 잘 하였으며(Strumpel 등, 1976; Lefcourt, 1976), 계획이 주는 장점을 확신하므로 통제감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관리행동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자원관리에 있어서도, 내적통제성향이 강한 관리자는 자원사용에 대한 판별력이 높아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하며(Sandler & Lakey, 1982; 김혜정, 1993), 자신이 처한 재정상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자신의 재정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높으며,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Danes, Retting, & Bauer, 1991; Hira, Fitzsimmons, & Bauer, 1993).

### 3. 변환과정요소

#### 1) 인적 하위체계: 부부 응집성 및 적응력

가정자원관리체계 모델은 발달적이고 개인 상호간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응집성과 적응력의 인적 하위

체계와 가족체계의 욕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행동을 수행하는 가족의 능력인 기능성의 관리적 하위체계의 차원을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기능은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순환모델에 포함된 응집성과 적응력의 개념으로 가계관리에 적용시킬 수 있다.

Olson등(1983)의 제시한 순환모델의 개념을 가정자원관리체계모델에 처음 적용시킨 Fitzsimmons, Hafstrom, & 임정빈 등(1991)의 연구와 최근 이연숙(1996)의 연구가 있다. Fitzsimmons 등(1991)의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순환모델의 응집성, 적응력 그리고 의사소통개념과 가정자원관리체계이론의 기능성인 가정자원관리행동과의 관계를 한국과 미국 농촌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새로운 시도였다. 이 연구는 가정자원관리체계 모델의 투입과 변환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Deacon과 Firebaugh(1988)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가족응집성 및 적응력과 가계의 재정관리행동의 빈도간의 정적인 선형관계를 가정하였다. 특히, 가족 응집성이 큰 가족일수록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체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개선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정자원관리방법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였다. 이연숙(1996)의 연구에서는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의 수준에 따라 가족유형으로 구분하여 가정관리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일수록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관리적 하위체계: 가계관리

가계관리는 인적 하위체계와 함께 변환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계획과 수행으로 구분된다. 계획은 가계운영 및 관리를 하기에 앞서서 가족의 목표 및 가족원의 요구를 명료화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족원의 목표 및 요구에 조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계획행동은 관리행동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행동은 재정적 목표달성과 자원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형태의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관리행동의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계획은 재정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Heck, 1983; Deacon & Firebaugh, 1988; Titus, Fanslow, & Hira, 1989; 이기영·조영희, 1992). 수행행동은 계획단계에서 결정한 내용을 효과적인 산출 즉, 목표달성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과정이다. 수행과정에서는 가계관리자 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계관리자가 수행행동과정을 통해 현재의 가계재정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계의 재정관리행동을 조정하거나 가계의 재정적 목표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가계재정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4. 산출요소: 가계재정복지

재정복지는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가계의 객관적 재정복지수준은 가계가 처해있는 객관적인 재정상태로서, 일정기간동안의 화폐소득액, 소비지출액, 총자산, 순자산, 총부채 등의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복지수준으로 측정된다(Strumpel, Curtin, & Schwartz, 1976; Winter, Morris, & Rubio, 1988; Ackerman & Paolucci, 1983).

그러나, 최근 소득의 높고 낮음만으로 가계의 재정복지수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소득에 순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 Weisbrod와 Hansen(1968)은 유량(flow)의 개념인 소득과 지량(stock)의 개념인 자산을 결합하기 위하여 자산을 유량개념으로 전환시켰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고려한 객관적 복지 척도를 사용하는 경향이다(Foster & Metzen, 1981; Wilhelm 등, 1987; Kim, 1991; 윤정혜, 1992; 노자경, 1991; 이종혜, 1993; 김민정, 1994). 또한, 가계의 재정복지개념은 객관적, 주관적 척도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들 척도는 상호영향력을 미치므로, 이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trumpel, 1973; Winter 등, 1984; Williams, 1986; Mammen

등, 1986; 고보선·이영호, 1995).

### Ⅲ.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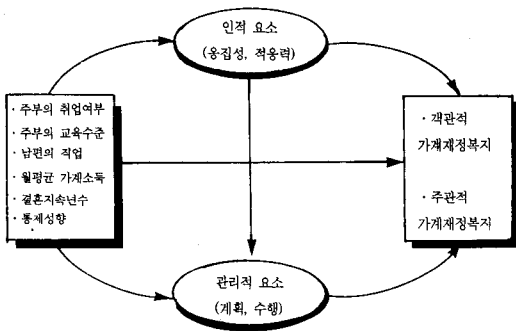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계재정복지개념을 연구모형과 이론적 모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인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계재정복지는 관련변인들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보이는가?



〈그림 1〉 가계재정복지의 연구모형

#### 2.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및 측정

###### (1) 통제성향 척도

Rotter(1966)와 Hira등(199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통제성향을 내적 통제성향과 외적 통제성향으로 구분하여 5점 Likert 척도의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재정에 대하여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702이다.

###### (2) 인적 하위체계요소 척도

부부 응집성 및 적응력은 Olson등(1982)의 FACES 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척도를 토대로 연구자가 보완·수정하였다. 부부 응집성과 적응력의 각각 6개 문항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심리적 친밀감 및 유대감과 역할관계의 적응 및 융통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s  $\alpha$ 는 .777과 .829이다.

###### (3)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 척도

Godwin 과 Carroll(1986), 그리고 Fitzsimmons 등(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가계관리 계획 5개 문항과 가계관리 수행 8개 문항을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Cronbach's  $\alpha$ 는 .784와 .766이다.

###### (4) 가계재정복지 척도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를 소득과 순자산으로 구성된 결합척도로 측정하였다. Weisbrod 와 Hansen(1968)은 소득의 유량(flow) 개념과 자산의 저장(stock) 개념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순자산을 연가치로 계산하였다. 순자산의 연가치( $NW_t \times A_t$ )이란, 순자산을 모두 연금으로 투자하여 주어진 이자율  $r$ 로 남은 여생( $n$ )동안 연금형식으로 받을 경우  $t$ 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를 말한다. 연가치는 자산에 연가치를  $An = [r / \{1 - (1+r)^{-n}\}]$ 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때  $r$ 은 이자율,  $n$ 은 기대여명이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는 Rudd(1986), Danes 와 Retting(1993), 그리고 Hira등(198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는 실제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 인지, 재정적 자원적정도,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그리고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향상감, 박탈감 등을 5점 Likert 척도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계재정복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는 .874 이다.

## 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 자녀 이상을 둔 가계로 가계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로 한정시켰다. 본조사는 1996년 5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662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t 검정,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인적 요소의 결정요인

### 1) 전업주부의 인적 요소

전업주부의 인적 요소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2>와 같다. 인적 요소에 결혼지속년수( $\beta=-.13$ )가 부적인 영향력을, 통제성향( $\beta=.16$ )이 정적인 영향력을 보여,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았다. 즉, 젊을수록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가계관리자는 외적통제를 하는 가계관리자보다 주위환경을 잘 조정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므로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업주부의 인적 요소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통제성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는 부부간의 심리적 유대감과 부부역할관계의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전업주부(N=399)	취업주부(N=258)
주부의 교육수준	12.83년	13.63년
남편의 직업	54%(전문직, 관리직)	53%(전문직, 관리직)
월평균 가계소득	286.60만원	330.39만원
결혼지속년수	18.52년	14.88년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6,348.74만원	6,490.51년
통제성향	3.46점(1-5점)	3.55점(1-5점)
인적 하위체계 요소	3.68점(1-5점)	3.69점(1-5점)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	3.70점(1-5점)	3.66점(1-5점)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3.41점(1-5점)	3.48점(1-5점)

### 2) 연령에 따른 기대여명표(한국의 사회지표, 1993)

여성의 연령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79세
기대여명	44.5	39.9	35.4	30.9	26.7	22.8	19.0	11.1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내적인 통제성향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인적 요소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전업주부		취업주부	
	인적 요소	인적 요소	인적 요소	인적 요소
	b	$\beta$	b	$\beta$
주부의 교육수준	-.01	-.02	-.01	-.06
남편의 직업	.06	.10	.08	.13
월평균 가계소득	.30	.07	.06	.12
결혼지속년수	-.01	-.13*	-.01	-.14*
통제성향	.04	.16**	.01	.03
상수	3.25		3.48	
N	337		226	
R2	.05		.05	
F 비	3.44**		2.08*	

주: \*  $P < .05$ ; \*\*  $P < .01$ .

2) 취업주부의 인적 요소

취업주부의 인적 요소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표 2〉와 같다. 인적 요소에 결혼지속년수( $\beta = -.14$ )만이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았다. 이는 전업주부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3. 관리적 요소의 결정요인

1) 전업주부의 관리적 요소

전업주부의 관리적 요소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관리적 요소의 예측인자는 남편의 직업( $\beta = .16$ ), 통제성향( $\beta = .15$ ), 그리고 인적요소( $\beta = .21$ )로 나타나,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을 하였다. 내적통제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행동을 잘한다. 특히, 가계가 재정문제에 접했을 때,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한 가계관리자는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켜 만족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집성과 적응력 자원

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성향의 개념은 가정자원관리이론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전업주부의 관리적 요소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 중 인적 요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 남편의 직업, 통제성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자원관리체계의 인적 요소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관리적 요소에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알 수 있으며, 변환과정내에서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은 효율적인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관리적 요소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전업주부		취업주부	
	관리적 요소	관리적 요소	관리적 요소	관리적 요소
	b	$\beta$	b	$\beta$
주부의 교육수준	.01	.01	-.01	-.03
남편의 직업	.08	.16**	-.01	-.01
월평균 가계소득	-.12	-.04	-.62	-.22**
결혼지속년수	.01	.07	.01	.17*
통제성향	.03	.15**	.01	.01
인적 요소	.35	.21***	.33	.38***
상수	1.80		2.63	
N	331		226	
R2	.24		.18	
F 비	16.80***		7.88***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2) 취업주부의 관리적 요소

취업주부의 관리적 요소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관리적 요소의 예측인자는 월평균 가계소득( $\beta = -.22$ ), 결혼지속년수( $\beta = .17$ ), 인적요소( $\beta = .38$ )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을 잘 하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효과적인 가계관리를 잘 하는 것은 가계소득이 적은 가계일수록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가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가계소득이 많은 가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가계관리의 중요성과 그 요구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가계관리의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요구의 증가로 인하여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을 위한 계획과 수행이 요구된다.

#### 4. 가계재정복지의 결정요인

##### 1)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결정요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sup>3)</sup>,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전업주부		취업주부	
	b	$\beta$	b	$\beta$
주부의 교육수준	.05	.22***	.07	.31***
남편의 직업	.13	.22***	.05	.09
결혼지속년수	.04	.58***	.03	.49***
통제성향	.01	.01	.02	.07
인적 요소	.17	.17***	.07	.08
관리적 요소	.14	.12*	.11	.11
상수	6.58		7.26	
N	324		217	
R2	.38		.29	
F 비	32.36***		14.12***	

주: \*  $P < .05$ ; \*\*\*  $P < .001$ .

##### (1) 전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 $\beta=.22$ ), 남편의 직업( $\beta=.22$ ), 결혼지속년수( $\beta=.58$ ), 인적 요소( $\beta=.17$ ), 관리적 요소( $\beta=.12$ )이다(<표 4>).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가계관리행동을 잘 할수록,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인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 모두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예측인자로 나타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가계관리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을 암시한 결과이다.

전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예측변인 중 결혼지속년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그 다음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직업, 인적 요소, 관리적 요소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이 다른 변인보다 커서 직접적으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 (2) 취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 $\beta=.31$ ), 결혼지속년수( $\beta=.49$ )로(<표 4>),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았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가계의 소득과 자산의 양이 변하는데, 대체로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가계소득과 자산수준이 향상되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취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예측변인 중 결혼지속년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주부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가계소득수준과 자산수준이 향상되므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결정요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3) 독립변인 중 월평균 가계소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에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표 5〉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독립변인	전업주부		취업주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b	$\beta$	b	$\beta$
주부의 교육수준	.01	.08	-.01	-.06
남편의 직업	.03	.05	.08	.15*
월평균 가계소득	.01	.22***	.01	.32***
결혼지속년수	-.01	-.10	-.01	-.11
통제성향	.10	.16**	.10	.14*
인적 요소	.20	.21***	.15	.17**
관리적 요소	.14	.22***	.38	.39***
상수	1.76		.80	
N	315		211	
R2	.18		.32	
F 비	9.87***		13.71***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1) 전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월평균 가계소득( $\beta = .22$ ), 통제성향( $\beta = .16$ ), 인적 요소( $\beta = .21$ ), 관리적 요소( $\beta = .22$ )로(〈표 5〉),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계관리행동을 잘할수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통제의 성향은 효율적인 가계관리의 촉진적 역할을 하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계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가계관리자는 더 많은 효용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높게 인지할 것이다.

(2) 취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취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남편의 직업( $\beta = .15$ ), 월평균 가계소득( $\beta = .32$ ), 통제성향( $\beta = .14$ ), 인적 요소( $\beta = .17$ ), 관리적 요소( $\beta = .39$ )로(〈표 5〉),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가계관리를 잘할수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고 가계소

득이 많으면,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분배에 제약을 적게 받아 재정문제의 경험을 적게하게 되므로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높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한 가계관리자는 부부간의 적응력이 높고, 자원에 대한 판별력이 높아 효과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므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가계재정복지의 인과모형

1)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인과모형

(1)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인과모형: 전업주부  
전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이며,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하여 〈그림 2〉와 같은 경로모형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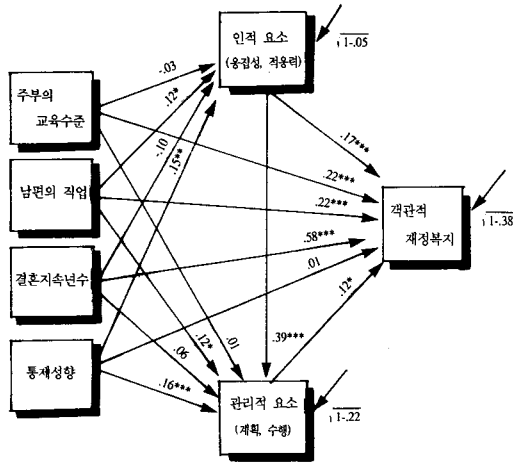
〈표 6〉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전업주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인적요소	관리적요소	객관적재정복지
	$\beta$	$\beta$	$\beta$
주부의 교육수준	-.03	-.01	.22***
남편의 직업	.12*	.12*	.22***
결혼지속년수	-.10	.06	.58***
통제성향	.15**	.16***	.01
인적요소	.	.39***	.17***
관리적요소	.	.	.12*
N	353	346	324
R2	.05	.22	.38
F 비	3.79**	19.07***	32.36***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인 인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를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7〉).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효과를 보면, 결혼지속년수, 남편의 직업, 주부의 교육수준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결혼지속년수는 비인과효과가 .09로 본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되지 못 하지만, 객관



〈그림 2〉 전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

〈표 7〉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에서의 공변량 분해: 전업주부

변인	인과효과		총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부의 교육수준	.22***	-.01	.21	-.10	.11
남편의 직업	.22***	.04	.26	.02	.28
결혼지속년수	.58***	-.01	.57	-.09	.48
통제성향	.01	.06	.07	-.01	.06
인적 요소	.17***	.05	.22	-.14	.08
관리적 요소	.12*	.	.12	-.11	.01

주: \* P<.05; \*\*\* P<.001.

적 가계재정복지에 .58의 직접효과와 -.01의 간접효과를 보임으로써 변인들 중 총인과효과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남편의 직업으로 .22의 직접효과와 .04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총인과효과를 증가시켰다. 즉, 남편의 직업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결정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매개효과를 경유한 간접효과의 정적인 영향력도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22의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지만, 매개변인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01로 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총인과효과를 감소시켰다. 인적 요소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각각 .17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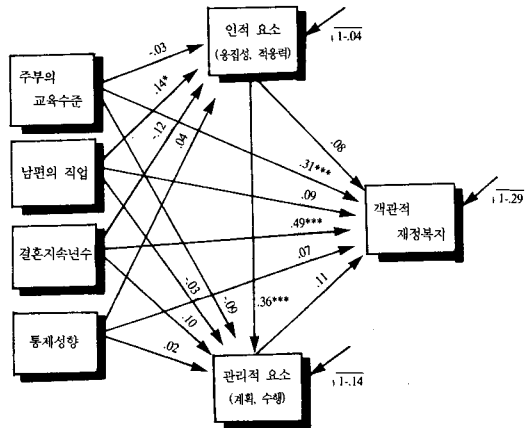
.05로 유의미하였으며, 정적인 간접효과의 영향으로 총인과효과가 증가하였다.

(2)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인과모형: 취업주부  
취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의 회귀 분석 결과는 〈표 8〉이며, 회귀분석을 토대로하여 〈그림 3〉과 같은 경로모형을 도출하였다.

〈표 8〉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취업주부

독립변인	인적요소 β	관리적요소 β	객관적재정복지 β
주부의 교육수준	-.03	-.09	.31***
남편의 직업	.14*	-.03	.09
결혼지속년수	-.12	.10	.49***
통제성향	.04	.02	.07
인적요소	.	.36***	.08
관리적요소	.	.	.11
N	230	225	217
R2	.04	.14	.29
F 비	1.92*	7.10***	14.12***

주: \* P<.05; \*\*\* P<.001.



〈그림 3〉 취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인 인적, 관리적 요소를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9〉).

〈표 9〉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에서의 공변량 분해: 취업주부

변인	인과효과		총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부의 교육수준	.31***	-.01	.30	-.04	.26
남편의 직업	.09	.02	.11	.10	.21
결혼지속년수	.49***	.00	.49	-.12	.37
통제성향	.07	.00	.07	-.06	.01
인적 요소	.08	.04	.12	-.10	.02
관리적 요소	.11	.	.11	-.04	.07

주: \*\*\* P<.0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효과를 보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에는 결혼지속년수,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결혼지속년수는 비인과효과가 -.12로 본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49의 직접효과를 보임으로써 변인들 중 인과효과가 가장 크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으로 .31의 직접효과와 -.01의 부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총인과효과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주부의 교육수준은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직업과 인적 요소는 각각 .09와 .04의 직접효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02와 .04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총인과효과를 증가시켰다. 특히, 인적 요소는 관련변인들 중 간접효과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은 가정관리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 결과이다.

2)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인과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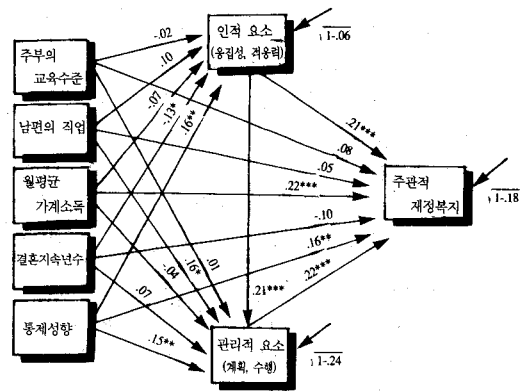
(1)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인과모형: 전업주부

전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이며, 회귀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림 4〉와 같은 경로모형을 도출하였다.

〈표 10〉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전업주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인적요소 β	종속변인 관리적요소 β	종속변인 주관적재정복지 β
주부의 교육수준	-.02	.01	.08
남편의 직업	.10	.16**	.05
월평균 가계소득	.07	-.04	.22***
결혼지속년수	-.13*	.07	-.10
통제성향	.16**	.15***	.16**
인적요소		.21***	.21***
관리적요소			.22***
N	337	331	315
R2	.05	.24	.18
F 비	3.44**	16.80***	9.87***

주: \* P<.05; \*\* P<.01; \*\*\* P<.001.



〈그림 4〉 전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인 인적, 관리적 요소를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1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효과를 보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에는 인적 요소, 관리적 요소, 월평균 가계소득 및 통제성향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인적 요소는 비인과효과가 .07로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22의 직접효과와 .05의 정적인 간접효과로 변인들 중 총인과효과가 가장 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응

〈표 11〉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에서의 공변량 분해: 전업주부

변인	인과효과		총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부의 교육수준	.08	.00	.08	-.03	.05
남편의 직업	.05	.06	.11	-.05	.06
월평균 가계소득	.22***	.00	.22	-.03	.19
결혼지속년수	-.10	-.02	-.12	.01	-.11
통제성향	.16**	.07	.23	-.04	.19
인적 요소	.21***	.05	.26	.07	.33
관리적 요소	.22***	.	.22	.03	.25

주: \*\* P<.01; \*\*\* P<.001.

집성과 적응력이 주관적인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가계관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인과효과가 큰 변인은 통제성향이며 직접효과 .16과 간접효과 .07로 총인과효과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통제성향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투입요소의 동기요소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인적, 관리적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관리적 요소는 .22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2)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인과모형: 취업주부

취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이며, 회귀분석을 토대로하여 〈그림 5〉와 같은 경로모형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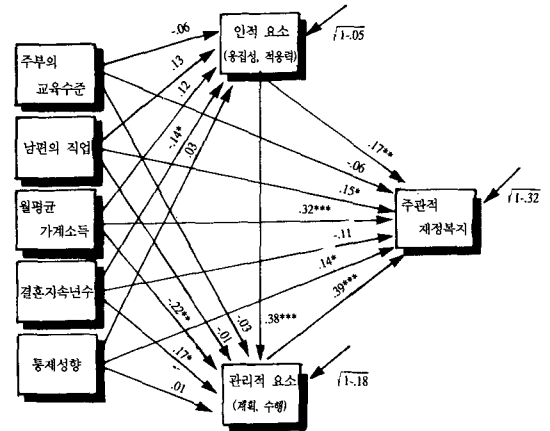
각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인 인적, 관리적 요소를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표 13〉).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효과를 보면 취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에는 관리적 요소, 인적 요소, 월평균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통제성향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관리적 요소는 비인과효과가 -.03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39의 직접효과로 변인들 중 총인과효과가 가장 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직접효과 .32와 간접효과 -.05로 총인과효과가 약간 감소하였

〈표 12〉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취업주부

독립변인	종속변인		
	인적요소	관리적요소	주관적재정복지
	$\beta$	$\beta$	$\beta$
주부의 교육수준	-.06	-.03	-.06
남편의 직업	.13	-.01	.15*
월평균 가계소득	.12	-.22**	.32***
결혼지속년수	-.14*	.17*	-.11
통제성향	.03	.01	.14*
인적요소	.	.38**	.17**
관리적요소	.	.	.39***
N	226	226	211
R2	.05	.18	.32
F 비	2.08*	7.88***	13.69***

주: \* P<.05; \*\* P<.01; \*\*\* P<.001.



〈그림 5〉 취업주부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

지만 관리적 요소 다음으로 총 인과효과가 큰 변인이다. 인적 요소는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17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15의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여, 총인과효과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부부가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으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을 하여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인과모형에서의 공변량  
분해: 취업주부

변 인	인과효과		총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부의					
교육수준	-.06	-.03	-.09	.19	.10
남편의 직업	.15**	.04	.19	.03	.22
월평균	.32***	-.05	.27	-.03	.24
가계소득	-.11	.03	-.08	.07	-.01
결혼지속년수	.14*	.01	.15	0	.15
통제성향	.17**	.15	.32	.01	.33
인적 요소	.39***		.39	-.03	.36
관리적 요소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 V. 결 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의 경우는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전업주부는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내적통제의 성향이 강할수록,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발달적 상황에 따른 부부간의 역할관계의 변화에 적응하는 융통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관리자가 젊을수록 열망수준이 높고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내적 통제의 성향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현명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통제의 성향이 가계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작용함을 볼 때, 가계관리자의 통제성향을 고려한 자원관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은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부는 내적통제력을 갖고 부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부역할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가계관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취업주부의 경우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효율적인 가계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계는 고소득 가계에 비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

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경우는 전업주부에 비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가족원의 요구와 자원간의 부조화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가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결혼지속년수이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가계관리행동을 하여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주부의 경우는 인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 모두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환과정요소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매개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넷째, 두 집단 모두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통제성향이 직·간접효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의 의도에 따라 통제성향은 가계관리행동의 동기요소 및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의 요소로 작용하여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관리자는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계재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내적통제의 성향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가계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간의 응집성 및 적응력의 인적 요소와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의 관리적 요소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예측하는 매개변인임이 검증되었다. 즉 인적 요소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정적인 직접효과와 가계관리를 경유한 정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가정자원관리체계의 변환과정 요소인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간의 관계가 검증되어 지금까지 연구에서 변환과정내에 인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를 동시에 위치시키지 않았던 점이 보완되었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경우는 인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과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전업주부의 경우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취업주부의 경우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을 취업주부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취업동기, 조력자의 유무, 가사노동시간 및 가족원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 여가시간 등의 가정적 특성과 노동시간, 탁아시설, 취업의 안정성 등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원의 요구와 자원간의 변화에 따라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이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인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의 관리체계의 변화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가계관리자에게 각 단계별로 효율적인 가계관리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정복지의 결정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생활수준과 생활표준의 비교에 따라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더라도 주관적인 복지수준은 낮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낮더라도 주관적인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조합적도 개발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고보선·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2), 269-280.
- 2)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3) 김민정(1994),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4) 이연숙(1996), “가족체계내의 역동성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295-307.
- 5) Danes, S.M. & Morris, E.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3), 205-215.
- 6)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 Bacon.
- 7) Fitzsimmons, V.S., Hira, T.K., Bauer, J.W., & Hafstrom, J.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3.
- 8) \_\_\_\_\_, Hafstrom, J.L., & Im Jeong-Bin(1991),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정 관리행동: Deacon & Firebaugh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1), 81-94.
- 9) Furnham, A.F.(1986), “Economic Locus of Control”, *Human Relations*, 39(1), 29-43.
- 10) Hira, T.K., Fitzsimmons V.S., Hafstrom, J.L., & Bauer, J.W.(199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37-256.
- 11)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L., Larsen, A.S., Muxen, M.J., & Wilson, M.A.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Sag.
- 12) Rotter, J.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 13)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S.Y. (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
- 14) Titus, P.M., Fanslow, A.M., &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4), 309-317.